

유아의 애착 및 어머니-유아 상호작용과 또래 상호작용간의 관계*

The Relation of Attachment and Mother-Child Interactions to Peer Interactions

이 영 **

Lee, Young

나유미***

Rah, Yu Mee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 of children's attachment security and mother-child interaction to children's peer interactions. The subjects were 51 preschoolers, 44 to 57 months of age and their mothers. Attachment was assessed using the Attachment Q-set (Waters, 1987), mother-child interactions at home were observed with the use of the Teaching Strategies Rating Scales (Erickson, Sroufe, Egeland, 1985), and peer interactions were observed during free play time, using the Holloway and Erickson(1988) categories.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showed that attachment security scores were negatively related to dependency toward peers. Mother's "structure and limit setting" and "respect for child's autonomy" were positively related to "helping with peers" and negatively to "asking for help" and "physical attack". The variables accounting for dependency toward peers were mother's hostility and attachment security.

* 이 논문은 '98년 삼성복지재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 연세대학교 시간강사

I. 서론

부모는 가정에서 아동과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기술과 사회적인 기대를 형성하도록 영향을 주며, 아동이 또래와 관계를 맺는 방식에 영향을 주게된다. 이런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들은 두 가지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Parke & Ladd, 1992), 주로 애착이론을 적용하여 인지적, 정서적인 측면을 매개로 그 연계성을 설명하거나(Sroufe & Fleeson, 1986), 상호작용 과정에서 학습되는 행동적 양상에 초점을 두기도 한다(Parke, Cassidy, Burks, Carson, & Boyum, 1992). 이 연구들은 모두 부모-아동 관계의 질이 아동의 또래 관계의 질과 관련됨을 입증하고 있지만, 그 메카니즘에 대해서는 다소 다르게 설명한다.

아동의 애착에 관한 연구들은 영아와 양육자 간의 관계의 질이 유아기 이후 또래와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영아기의 애착관계와 이후 또래관계 간의 연계성은 다음의 몇 가지 가정에서 출발된다.

첫째, 아동이 부모로부터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을 경험하여 부모에게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면 환경을 탐색할 때 부모를 안전한 기반으로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또래와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자율성과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Belsky, 1984). 아동에게 민감한 부모는 반응적으로 양육하며 아동의 자율성을 지지하기 때문에 아동은 자기 가치감과 효능성을 발달시킨다. 둘째, 애착 관계를 통해 아동이 자신과 타인, 또는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내적 실행 모델"을 형성하게 되고(Bowlby, 1973), 이것은 또래에 대한 아동의 기대와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한 아동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긍정적인 사회적 기대치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 기대는 또래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도록 유도하며, 또래와 함께 있을 만하다는 기대를 갖도록 할 것이다(Elicker, Englund, & Sroufe, 1992; Sroufe & Fleeson, 1986). 이들은 또래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애착 관계를 형성한 아동보다 또래 상호작용을 주도하게 되고 또래의 행동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다.

애착 이론에서 유도되는 이 같은 가정을 토대로, 연구들은 주로 영아기에 낯선 상황에서 측정된 애착 유형에 따라 유아기 또래 관계의 질에 차이가 있는지를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측면에서 경험적으로 입증해 왔다.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유아들보다 또래와의 관계에서 더 자신감이 있었으며, 더 나은 사회적 기술을 보였다(Erickson, Sroufe, & Egeland, 1985). 또한 안정된 유아들은 교실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정서를 나타내었고, 또래의 행동에 긍정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었으며(LaFreniere & Sroufe, 1985; Lieberman, 1977; Sroufe, 1983; Sroufe, Schork, Motti, Lawroski, & LaFreniere, 1985), 또래에게 반응할 때 감정이입을 더 잘 할 수 있었다(Sroufe & Fleeson, 1986). 내적 실행 모델을 검증하는 연구들 중 또래에 대한 표상이나 대인관계 인지에 관한 연구에서는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유아들이 대인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인지하였으며 또래의 의도에 대해서도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귀인하였다(Suess, 1987). 또한 자존감이 더 높았고 (Sroufe, 1983), 자신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안

정된 애착을 형성한 유아들이 융통적이고 개방적으로 평가한 반면,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유아들은 자신을 더 완벽하고 방어적인 방식으로 평가하였다(Cassidy, 1988).

한편, 부모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의 교환에 초점을 두고 부모관계-또래관계의 연결을 설명하는 관점에서는, 아동이 부모와 일상적으로 얼굴을 맞대며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또래 관계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들을 학습하며 연습하게 된다고 제안한다(Parke, MacDonald, Beitel, et al., 1988; Parke, MacDonald, Burks, et al., 1989).

이런 관점에서 수행된 연구들은 부모-아동 간의 놀이가 아동의 대인간 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맥락이 된다고 본다. 즉, 부모가 아동과 놀이하는 동안에 보이는 적절한 지도력은 아동이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동안 사회적 행동을 시작하고, 조절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부모가 긍정적인 정서를 유도해 내고 정서적인 교환을 조절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아동이 또래의 감정 표출을 해석하는 방법과 자신의 정서가 또래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이해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게 된다(Ladd, 1992).

상호작용이론에 기초한 연구의 대부분은 유아기 이후의 보다 나이 많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또래 관계의 양상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또래 지위나 인기도와 같은 척도를 사용한 경우가 많다(Burks, Carson, & Parke, 1987; MacDonald & Parke, 1984; Puttallaz, 1987). 그러나 몇몇 연구에서는 또래 관계에서 일어나는 긍정적, 부정적 행동을 관찰하였다. Gottman과 Fainsilber-Katz(1989)는 냉정하고, 덜 반응적이며, 한계 설정 수준이 낮은 양육방식을 보이는 부모는 자녀로 하여금 분노와 불순응 행동을 유

발시키는 것으로 보고했고, 이 아동들은 또래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다. Dishion, Duncan, Eddy, Fagot, 그리고 Fetrow(1994)의 연구에서는 실험실에서 부모와 아동이 함께 과제를 해결하는 상황에서 부모와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한 아동들이 학교에서 또래와 놀이할 때 부정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Youngblade와 Belsky(1992)는 애착이론과 상호작용이론의 두 가지 관점을 통합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즉, 1세 때 영아와 부모간의 애착 안정성을 측정한 후 3세에 부모-아동 상호작용 양상을 측정하였고 5세에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관찰함으로써 애착과 부모-아동 상호작용이 이후 또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종단적으로 살펴보았다. Fagot(1997)은 18개월 때 애착 유형과 가정에서 관찰된 부모-영아 상호작용이 6개월 후 또래 집단에서의 상호작용의 양상과 관련되는지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는 부모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 양상은 또래 집단에서의 상호 부정적인 행동을 예측할 수 있었고, 애착은 그 이상의 변량을 설명해 주지는 못했다. 그러나 또래간 상호 긍정적인 행동은 가정에서의 부모와의 상호작용보다는 애착 관계를 통해 예측되었고, 애착 유형 중 안정된 애착은 불안 저항 유형에 비해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했다.

애착이론의 관점과 상호작용이론의 관점은 부모-아동간의 관계의 질이 아동의 또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설명함에 있어 서로 보완적이다. 어머니에 대한 애착 안정성과 어머니-아동 상호작용은 모두 어머니와 아동 관계의 질을 반영하는 개념으로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는 개념이다. 애착 안정성은 영아기부터 시작된 양육사의 질을 반영하는 정서적, 인지적 측면에서의 관계 구인이며, 이는 구체적인 행동적 상호작용

의 역사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유아기의 어머니-아동 상호작용 양상은 영아기부터 형성된 애착 관계의 질이 행동적으로 나타나는 관계 구인이라고 볼 수 있다. 서로 연관되지만 또래 관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 측면에서는 이론적으로 분리된 개념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각각의 이론적 관점에서 수행되었지만, 두 가지 관점을 통합한 접근 방법은 단일 이론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부모-또래 관계의 양상에 대한 설명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관점으로 시도된 연구들은 소수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애착이론과 상호작용이론에서 나온 두 개념인 어머니에 대한 아동의 애착 안정성과 어머니-아동 상호작용 행동에 초점을 두고 부모 관계의 질과 아동의 또래 관계의 질간의 연계성을 알아보 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연구설계상의 이론적인 틀로서 애착이론과 상호작용 접근을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Fagot(1997)의 연구와 유사하다. 그러나 Fagot의 연구에서는 영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부모와의 관계와 또래 관계에서 교환되는 행동의 상호성, 즉 주도 행동과 반응

행동을 중심으로 부모의 긍정적·부정적인 행동과 아동이 또래 관계에서 보이는 긍정적·부정적 행동간의 연결을 알아보았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또래간의 관계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또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행동의 긍정적·부정적인 측면 이외에 의존적 행동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행동 양상을 파악하였고 가정에서 아동에게 보이는 어머니 행동도 긍정·부정 측면으로 분류하기보다는 구체적인 행동 양상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 안정성은 또래 관계의 어떤 측면과 관련되는지, 그리고 가정에서 어머니가 아동에게 보이는 행동과 아동이 또래 관계에서 보이는 행동이 어떤 양상으로 관련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애착과 또래 상호작용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둘째, 어머니-유아 상호작용과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셋째,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대한 애착과 어머니-유아 상호작용의 설명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시내 중류층 지역에 위치한 유치원 6군데와 일산 신도시의 유치원 1군데를 임의 표집하여 총 7군데 유치원의 원아 51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남아가 28명, 여아가 23명이었다. 이들의 나이는 44개월부터 57개월 사이였으며, 평균 50.9개월이

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이 45명(88%), 전문대졸 1명(2%), 고졸 5명(10%)였다.

2. 연구도구

1) 애착 안정성

애착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Waters(1987)의 애착 Q-set(AQS)의 한국판이

영, 박경자, 나유미, 1997)을 사용했다. 애착 Q-set 카드는 90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카드에는 가정에서 보이는 애착 관련 행동이 적혀 있다. 카드분류 방법은 유아의 특성과 가장 일치하는 행동의 카드는 9점에, 가장 일치하지 않는 행동의 카드는 1점에 놓되, 1점부터 9점까지 각 점수에 10장씩의 카드가 놓이도록 분류한다. 유아의 애착 안정성 점수는 전문가들에 의해 분류된 한국판 준거점수를 이용하여, 준거 점수와 연구대상 유아에 대한 카드 분류 점수간의 상관계수를 통해 산출된다.

2) 어머니-유아 상호작용

어머니-유아 상호작용 행동은 4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을 관찰하였다. 4가지 과제는 Erickson, Sroufe와 Egeland(1985)가 고안한 과제를 근거로 연구자가 선택한 것이며, 토막짜기, 바퀴달린 사물의 이름을 될 수 있는 한 많이 말하기, 모양에 맞는 블록을 크기 순으로 배치하기, 미로찾기였다. 모든 과제 상황이 비디오로 녹화되었고, Erickson, Sroufe와 Egeland(1985)의 교수전략 평정척도(Teaching Strategies Rating Scale)에 근거하여 상호작용 행동이 선정·평정되었다. 어머니의 행동 특성은 4개의 항목, 즉 "정서적 지지 표현", "자율성 허용", "한계설정", "적대심 표현"을 선정하였다. 각 하위 항목에 대한 평가는 1점에서 7점까지로 평정되며, 각 점수마다 특정 행동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기술 평정척도이며, 높은 평정점수(6 또는 7)는 그 항목에 참여한 정도가 높은 경우를 기술하며, 낮은 평정점수(1 또는 2)는 그 항목에 낮게 참여한 경우를 기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관찰자간 일치도는 각 항목별로 Pearson 상관계수로 산출한 결과, .78~1.0이었으며, 평균 일치도는 .93이었다.

3) 또래 간 상호작용

유아의 또래 간 상호작용은 Holloway와 Reichhart-Erickson(1988)의 관찰 범주를 신혜원(1992)이 번안한 것을 기초로 본 연구자들이 예비조사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관찰도구는 유치원의 자유놀이 시간 동안 발생하는 아동의 개별행동, 교사와의 상호작용, 또래와의 상호작용 등 3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와의 상호작용 행동에 대한 관찰 자료만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긍정적, 의존적, 부정적 상호작용의 3가지 하위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적 상호작용에는 "도움주기, 나누기," "대화하기", "미소·웃음 주고받기", "자기의견 제안하기", "애정적 신체적 접촉", "긍정적 중립 행동"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존적 상호작용에는 "도움 요구"와 "승인·인정 요구"의 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 상호작용에는 "거절하기", "신체적 공격", "언어적 공격", "방해하기", "비공격적 부정적 행동"의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화 방법은 또래와의 상호작용 행동의 발생 빈도 중 각 하위항목의 행동 발생 비율로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세 명의 관찰자간 일치도(Kappa 계수)는 .70~.77이었고, 평균 일치도는 .74였다.

3. 연구절차

예비조사는 가정에서의 관찰과 유치원에서의 관찰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가정에서의 예비조사는 해당 연령의 유아 4명을 대상으로, 어머니-유아 상호작용 연구도구의 적합성과 애착을 포함한 전체 수행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유치원에서의 관찰은 또래 상호작용을 관찰할 때 시간표집법의 관찰 단위시간 및 관찰 항목의

적절성, 관찰자 간 일치도를 높이기 위한 훈련 등의 목적으로 4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본조사는 1998년 9월부터 11월에 걸쳐 유아의 가정 및 유치원을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가정에서 과제 수행시의 어머니-유아 상호작용은 비디오 녹화하였고, 애착 Q-sort는 조사자의 보조하에 어머니가 직접 분류하였다. 또래 간 상호작용은 4명의 조사자가 각 유치원을 방문하여 자유놀이 시간 동안 관찰하였다.

4. 자료분석

Q-sort에 의해 측정된 애착 안정성 점수는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없으므로, 통계분석에 이용되기 위해서는 Fisher's r-to-z 방법으로 전환하였으며, 분석에는 전환된 점수를 이용하였다. 연구 문제의 자료분석을 위해서는 Pearson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이 이용되었다.

Ⅲ. 결과 및 해석

1. 예비 분석

애착 안정성과 어머니-유아 상호작용이 또래 간 상호작용과 어떤 양상으로 관련되는지를 분석하기에 앞서, 각 변인의 측정 결과 아동의 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또래 간 상호작용 행동 중 부정적 행동에서만 성차

가 유의했다($t=-2.03$, $df=49$, $p<.05$). 즉 남아가 여아보다 부정적 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 대부분의 변인에서 아동의 성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므로 이후 분석에서 남녀 아동을 합쳐서 분석하였고, 회귀분석에서는 아동의 성을 통제변인으로 사용하였다.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성별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아동의 성별에 따른 애착, 어머니-유아 상호작용, 또래간 상호작용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 인	남(n=28)		여(n=23)	
	M	SD	M	SD
애착 안정성	.41 ^a	.18	.49 ^a	.16
어머니 행동				
정서적 지지 표현	5.47	1.61	5.67	1.46
자율성 허용	5.33	5.33	5.33	1.66
한계설정	5.63	1.79	5.88	1.23
적대심 표현	1.17	0.46	1.00	.00
또래 간 상호 작용				
긍정적 행동	94.04	4.47	96.47	4.58
의존적 행동	2.12	2.76	1.70	2.60
부정적 행동*	3.83	3.90	1.83	2.97

* $t=-2.031$, $df=49$, $p<.05$

a. 여기에 제시된 M과 SD는 Fisher's z로 전환되지 않은 점수임.

2.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애착과 또래 상호작용간의 관계

유아의 애착 안정성 점수와 또래 상호작용의 각 하위 범주인 긍정적, 의존적, 부정적 상호작용 행동의 점수간에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

과, 애착 안정성과 또래간 긍정적, 부정적 상호작용 행동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의존적 행동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애착 안정성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의존적인 행동을 적게 보였다. 상관분석의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애착 안정성과 또래 상호작용 간의 상관관계

또래 상호 작용	긍정적 행동	의존적 행동	부정적 행동
애착 안정성	.19	-.30*	-.02

* $p < .05$

또래 상호작용 행동의 하위 항목들과 애착 안정성 간의 상관분석에서는 유일하게 또래에 대한 의존적 행동의 하위 항목인 “승인·인정 요구”와 부적 상관을 보여($r = -.28, p < .05$), 애착 안정성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에 대한 승인과 인정을 받으려는 행동을 적게 보였다.

3. 어머니-유아 상호작용과 또래 상호작용간의 관계

유아가 과제를 해결하는 동안 보인 어머니 행동의 4가지 항목과 또래간 상호작용에서 보인 유아의 행동이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또래간 상호작용에서 유아의 긍정적 행동은 어머니의 행동 중 “한계설정”과 상관이 있었으며($r = .32, p < .05$), 의존적 행동은 어머니의 “적대심 표현”과 상관이 있었다($r = .43, p < .01$). 즉, 유아의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를 효율적으로 실현시켜 나가는 어머니의 지도력인 ‘한계설정’ 항목에서 어머니의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는 또래들과 긍정적인 방

식으로 행동했으며, 어머니가 유아에게 ‘적대심’을 표현할수록 유아는 또래 관계에서 의존적이었다. 유아의 부정적 행동은 어머니의 행동과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또래간 상호작용 행동의 하위항목별로 살펴보면, 유아의 긍정적 행동 중 “도움주기·나누기 행동”은 어머니의 “자율성 허용”과 정적 관계가 있었고($r = .35, p < .05$), 또래에 대한 “애정적 신체적 접촉”은 어머니의 “한계설정”($r = -.47, p < .01$)과 각각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어머니가 자신의 방식대로 다루지 않고 유아의 관점과 방식을 인정하고 기다려주는 행동인 “자율성 허용” 정도가 높을수록 유아는 또래 관계에서 도움을 나누는 행동을 많이 보였다. 유아의 의존적 행동 중 도움 요구 행동은 어머니의 “자율성 허용”($r = -.35, p < .05$), “한계설정”($r = -.35, p < .05$)과 각각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어머니의 “적대심 표현”과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r = .51, p < .01$). 즉, 또래 관계에서 도움을 요구하는 의존적 행동을 많이 보이는 유아일수록 그들의 어머니는 적대심 표현 정도가 많았으며, 자율성 허용, 한계 설정 수준이 낮았다. 유아의 부정적 행동 중 신체적 공

〈표 3〉 어머니 상호작용 행동과 유아의 또래간 상호작용 행동간의 상관관계

어머니 행동 또래 상호작용	정서적 지지 표현	자율성 허용	한계설정	적대심 표현
<u>긍정적 행동</u>				
도움주기 · 나누기	.10	.35*	.13	.10
대화하기	.09	.05	-.04	.18
미소, 웃음 주고받기	.02	.04	-.03	-.00
의견 제안하기	-.17	-.18	-.14	.02
애정적 신체 접촉	-.24	-.21	-.47**	.13
긍정적 중립 행동	-.04	-.07	.17	.07
합계	.02	-.12	.32*	-.24
<u>의존적 행동</u>				
도움 요구	-.19	-.35*	-.35*	.51**
승인 · 인정 요구	-.22	.04	-.01	.09
합계	-.00	-.24	-.27	.43**
<u>부정적 행동</u>				
거절하기	-.01	.11	.07	.15
신체적 공격	-.28*	-.14	-.41**	-.06
언어적 공격	.01	-.15	-.08	-.06
방해하기	-.00	-.02	.10	-.05
비공격적 부정 행동	.01	.06	-.21	-.03
합계	-.02	.02	-.21	-.01

격 행동은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표현”(r=-.28, p<.05), “한계 설정”(r=-.41, p<.01)과 각각 부적 상관을 보였다.

4. 또래간 상호작용에 대한 애착 안정성과 어머니-아동 상호작용의 설명력

애착 안정성 점수와 어머니-아동 상호작용시의 어머니 행동이 또래간 상호작용의 변량을 어느 정도 설명해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또래간 상호작용 행동의 하위항목인 긍정적 행동, 의존적 행동, 부정적 행동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표집크기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변인의 수가 많거나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큰 경우에는 회귀분석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회귀식에 포함된 독립변인은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30을 넘지 않으며 앞의 분석에서 종속변인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변인만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독립변인으로 어머니 행동 중에는 “적대심 표현”만을 선정하여 애착 안정성과 함께 분석하였다. 회귀 분석 결과, 의존적 행동에 대한 회귀식이 유의하였다. 회귀분석 결과표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유아의 또래간 의존적 행동에 대한 애착 안정성과 어머니 행동의 중다회귀분석

독립변인	1	2	3	종속변인 (의존적 행동)	β	R ²	ΔR^2
1. 아동의 성	-	.22	-.18	.07	-.06	.01	.01
2. 어머니의 적대심 표현-	-	-	-.20	.43	.40**	.19	.18
3. 애착 안정성	-	-	-	-.31	-.24*	.24	.05
M		1.08	.50	1.98			
SD		.34	.22	2.71			

Note. Overall R²=.24, p<.01; Adjusted R²=.19; R=.56; F(3,48)=4.73, p<.01.

* P<.10, ** P<.01

애착 안정성과 어머니 행동 중 적대심 표현 행동은 또래에 대한 유아의 의존적 행동의 20%정도를 설명했다. 이 중에서 어머니의 적대심 표현

행동은 p<.01수준에서 유아의 의존적 행동을 설명하는 유의한 설명변인이었고, 애착 안정성은 p<.10 수준에서 유의한 설명변인이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에 대한 애착이론과 상호작용이론을 일부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즉, 어머니에 대한 애착 안정성과 놀이실에서 보이는 유아의 또래간 상호작용 행동은 서로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또래 상호작용 중 긍정적, 부정적 상호작용과 애착 안정성 간에는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고, 의존적 행동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성이 있었다. 의존적 행동 중에서도 또래에게 승인이나 인정을 요구하는 행동과 부적 상관성이 있어,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안정된 유아일수록 놀이 활동시에 또래로부터 승인이나 인정을 요구하는 행동이 적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안정된 애착 관계의 유아들이 불안정 애착 유아들보다 사회적으로 더 유능하고 덜 의존적이라는 Urban, Carlson, Egeland 그리고 Sroufe(1991)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선행연구

들에서는 대부분 애착 관계의 유형에 따른 또래간 상호작용 행동의 차이를 비교하였는데, 이들 연구 결과(Erickson et al., 1985; Fagot, 1997; Pastor, 1981)에서는 불안정한 애착유형 중 불안정 저항 유형의 유아들이 회피유형이나 안정유형의 유아에 비해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덜 주도적이었으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덜 하였다고 보고했다. 또한 Lieberman(1977)의 연구결과에서도 애착이 안정된 3세 유아들이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더 긍정적이었으며 덜 부정적인 행동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또래간 긍정적 상호작용이나 부정적 상호작용에 대한 상관성이 유의하지 않은 것은 제한된 표집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즉, 본 연구의 대상에는 대체로 안정된 애착에 있는 유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 대상의 애착

안정성 점수는($M=.50$, $SD=.23$, $.05\sim+1.0$) Fisher's r -to- z 로 전환된 상태에서 비교해 보았을 때, 미국에서 보고된 다양한 연구들에서 나타난 비슷한 연령의 유아들의 점수(예: Teti, Nakagawa, Das, & Wirth, 1991에서 $M=.44$, $SD=.25$, $-.12\sim+1.05$)보다 다소 높았다. 또한 비슷한 연령의 우리나라 중류층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 선행 연구들(이정희, 1993; 나종혜, 1993; 이 영, 신은주, 나종혜, 1994)에 비해서도 본 연구대상의 애착 안정성 점수가 다소 높았다. 영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나유미, 1997)이지만, 애착 Q-sort에서 나타난 애착 안정성 점수들이 본 연구와 어느 정도 유사했던 영아들이 낯선 상황에서 모두 안정된 애착 유형으로 분류된 바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대상에 대체로 안정된 애착의 유아들이 많이 포함되었고, 또래 상호작용 행동에서도 부정적인 행동이 많이 출현되지 않아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의 변산이 다소 작은 상태였기 때문에, 또래 상호작용 행동의 긍정성과 부정성에 대한 관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검증되지 못하였고 단지 관계의 방향성 면에서만 애착 이론에서의 가정과 일치되는 방향을 보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안정된 유형의 유아들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집단의 유아들에게서 애착과 또래 의존성간에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애착 안정성 구인은 행동적 구인이라기보다는 인지적·정서적 구인이다. 또래와의 활동에서 주도적이기보다는 인정받거나 주의를 끌려는 의존적인 행동은 행동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정서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부정적 행동은 주로 갈등이 일어난 상태이거나 갈등이라고 지각한 상태에서 그것을 해결하는 사회적 기술로서의 대처 행동인 반면, 의존적 행동은 자신에 대한 가치감이나 자율성과 관련

된 정서적 측면에 초점을 둔 행동이다. 애착 이론에서는 내적 실행 모델 개념과 유아의 탐색활동을 위한 안전한 기반으로서의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관점을 근거로,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한 아동은 또래에 대한 기대가 긍정적이며 자신에 대한 가치감과 효능성을 발달시킨다고 본다. 실제로, 이주리(1996)의 연구 결과에서도 애착이 안정될수록 자신에 대한 인지적·사회적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애착 안정성 정도가 낮을수록 주도적인 활동이 낮게 나타날 수 있으며, 또한 자기에 대한 완벽한 기대와 방어적인 태도를 형성함으로써 유아의 행동은 또래로부터 인정받으려는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애착관계가 불안정할수록 부정적 상호작용을 많이 할지라도, 본 연구의 표집과 같이 애착 관계가 덜 불안정한 집단 내에서는 애착 관계의 안정성 정도는 또래에 대한 의존적 양상과 더 쉽게 연관되어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유아의 또래관계에서의 부정적 상호작용은 애착관계 외에 유아에 대한 부모의 상호작용 방식에 의해 더 많이 증재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다. Fagot(1997)의 연구에서도 또래 관계의 부정적 상호작용을 예측하는 변인은 부모와의 애착 관계보다는 유아에 대한 부모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이었다.

애착 안정성과 부모-유아의 상호작용은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일치된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 다른 과정을 거쳐 또래 관계에서의 유아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유아와 함께 규칙을 협상하거나 유아의 의도를 인정하는 행동인, 유아에 대한 자율성 허용 정도가 높을수록 유아는 또래 관계에서 도움주기·나누기 행동을 많이 보였고 의존적인 도움 요구 행동은 적게 보였다. 또한 한계설정에 유능한 어

머니들의 유아는 또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행동을 많이 보였고, 도움을 요구하는 행동이 적었으며, 신체적 공격 행동도 적었다. 한편 유아를 무시하거나 실수에 대한 비난, 또는 유아에 대한 냉정함을 나타내며 적대심을 표현하는 어머니일수록 그들의 유아는 또래 관계에서 의존적인 행동을 많이 보였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적대심 표현 정도가 심한 경우는 많지 않았으며, 단지 유아의 행동에 대한 냉정한 표정과 실수에 대해 무언의 형식으로 짧은 순간동안 비난을 보이는 정도였다. 이들은 아동에게 자율성을 허용하는 정도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서($r = -.37, p < .01$), 유아의 행동이 자신의 기대에 어긋나면 기다려 주기 어려워하는 것 같다. 이런 어머니의 유아들은 일상적으로 자신의 주도성을 충분히 발휘해 볼 기회가 적어 자신감을 갖기보다는 또래에 대한 의존성을 학습하게 될 수도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전반적으로 유아에게 보이는 어머니의 행동이 긍정적일수록 또래 관계에서 보이는 유아의 행동은 긍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상호작용이론의 관점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Gottman과 Fainsilber-Katz(1989)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된다. 어머니-유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보이는 어머니의 행동은 유아가 또래 관계에서 행동을 교환하는 기술과 체계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또래 상호작용 행동 중 또래에 대한 긍정적 행동 중의 하나로 포함된 유아의 애정적 신체 접촉은 어머니의 한계설정, 과제지시의 적절성, 유아와의 관계에 대한 믿음 등의 행동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유아와의 관계에서 자신감 있게 효율적으로 지도력을 발휘하는 어머니의 유아들은 또래에 대한 애정적 신체접촉을 덜 하였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연구대상의 연령 수준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영아와는 달

리 4세 유아에게 있어서 애정적 신체 접촉이 긍정적 또래 상호작용으로 작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애정적 신체 접촉 행동을 적게 보일수록 또래에 대한 신체적 공격도 적었다는 결과로도 뒷받침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애착 안정성과 또래 의존적 행동 사이의 관계성, 그리고 어머니 상호작용과 또래 상호작용간의 관계성 양상을 볼 때, 애착과 어머니-유아 상호작용은 분리된 구인으로서 각기 다른 형태로 또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두 가지 구인이 함께 또래 상호작용에 얼마나 작용하는 지 알아본 결과에서, 애착 안정성과 어머니의 적대심 표현 행동이 또래에 대한 의존적 행동을 설명하는 변인이었으나, 애착 안정성보다는 어머니가 유아를 향해 보이는 적대심의 표현과 더 큰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애착 안정성과 또래에 대한 의존적 행동간의 관계에서 나타난 유의한 상관관계가 어머니의 적대심 표현 행동을 포함한 회귀분석에서는 감소하였다. 그것은 각각의 구인이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과 일정한 관련성을 갖고 있더라도 어느 정도 중복되어 작용하기 때문인 것 같다.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애착 안정성은 이전에 경험해 왔던 어머니-유아 관계의 질을 반영한 것이므로 현재의 어머니-유아 간 상호작용 방식과도 연관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를 통해,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가 크게 불안하지 않은 유아들 사이에서는 애착과 어머니 행동의 영향력이 또래 관계에서의 의존적 행동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 지금까지, 부모에 대한 애착과 또래 관계를 연결시킨 선행 연구들은 주로 또래 상호작용시의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중심으로 또래간 상호행동의 긍정성과 부정성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또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의존적인 행동에 대한

본 연구에서의 보고는 추후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사회계층을 포함하지 못하고 주로 중류층 이상의 어머니와 유아만 포함했기 때문에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의 변인이 크지 못해 제한된 관계성을 보여주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또래 상호작용은 유아교육기관의 특성과 같은 사회 생태학적 변인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저소득층 유아들이 다니는 기관은 중류층 지역의 기관에 비해 교육 환경의 질적 수준이 낮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애착 이론과 상호작용 이론에 기초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중류층 이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 분

명한 한계점은 연구를 위해 가정방문을 허락한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유아에 대한 관심이 많은 어머니들만 선정되어 표집상의 편파가 있었을 것이다. 연구의 또 다른 한계점은 연구의 가설이 인과관계를 내포하고 있는데 비해, 현재의 애착 안정성과 어머니-아동 상호작용을 측정하여 또래 관계와의 관련성을 탐색했다는 점이다. 이론적 가설에 내포된 인과관계의 방향성을 단지 상관관계를 기초로 추정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통해 얻는 시사점이 제한된다. 이 점은 종단적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나유미 (1997). 한국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행동 특성.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나종혜 (1994). 어머니와 탁아교사에 대한 유아의 애착 비교.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혜원 (1992).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에 따른 아동의 놀이실 행동.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 박경자, 나유미 (1997). 애착 Q-set의 국내 준거 개발 연구. *아동학회지*, 18(2), 131-148.
- 이영, 신은주, 나종혜 (1994). 영유아 양육환경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 (I). *아동학회지*, 15(2), 37-54.
- 이정희 (1994). 취업모와 자녀간 애착 안정성과 관련 변인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주리 (1996). 유아의 모자간 애착과 역량지각.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14(1), 177-186.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New York: Basic.
- Burks, V. M., Carson, J. L., & Parke, R. D. (1987). *Parent-child interactional styles of popular and rejected children*.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
- Cassidy, J. (1988). Child-mother attachment and the self in 6-year-olds. *Child Development*, 59, 121-134.
- Dishion, T. J., Duncan, T. E., Eddy, J. M., Fagot, B. I., & Fetrow, R. (1994). The world of parents and peers: Coercive exchanges and children's social adaptation. *Social Development*, 3, 255-268.
- Elicker, J., Englund, M., & Sroufe, A. (1992). Predicting peer competence and peer relationships in childhood from early parent-

- child relationship. In R. D. Parke & G. W. Ladd (Eds.), *Family-peer relationships: Modes of linkage* (pp. 77-106). Hillsdale, NJ: Erlbaum.
- Erickson, M. F., Sroufe, L. A., & Egeland, B. (1985).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attachment and behavior problems in preschool in a high-risk sample.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 Fagot, B. I. (1997). Attachment, parenting, and peer interactions of toddler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3*(3), 489-499.
- Gottman, J. M., & Fainsilber-Katz, L. F. (1989). Effects of marital discord on young children's peer interaction and health. *Developmental Psychology, 25*, 373-381.
- Holloway, S. D., & Reichhart-Erickson, M. (1988). The relationship of day care quality to children's free-play behavior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 39-53.
- LaFreniere, P. J., & Sroufe, L. A. (1985). Profiles of peer competence in the preschool: Interrelations between measures, influence of social ecology, and relation to attachment history. *Developmental Psychology, 21*, 56-69.
- Lieberman, A. F. (1977). Preschoolers' competence with a peer: Relations with attachment and peer experience. *Child Development, 48*, 1277-1287.
- MacDonald, K., & Parke, R. (1984). Bridging the gap: Parent-child interaction and peer interactive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5*, 1265-1277.
- Parke, R., Cassidy, J., Burks, V. M., Carson, J. L., & Boyum, L. A. (1992). Familial contribution to peer competence among young children: The role of interactive and affective processes. In R. D. Parke & G. W. Ladd (Eds.), *Family-peer relationships* (pp. 107-134). Hillsdale, NJ: Erlbaum.
- Parke, R., MacDonald, K., Beitel, A., & Bhavnagri, N. (1988). The role of the family in the development of peer relationships. In R. Peters & R. J. McMahon (Eds.), *Social learning systems approaches to marriage and the family* (pp. 17-44). New York: Brunner/Mazel.
- Parke, R., MacDonald, K., Burks, V. M., Carson, J. L., Bhavnagri, N., Barth, J. M., & Beitel, A. (1989). Family and peer systems: In search of linkages. In K. Kreppner & R. M. Lerner (Eds.), *Family systems and life span development* (pp. 65-92). Hillsdale, NJ: Erlbaum.
- Pastor, D. L. (1981). The quality of mother-infant attachment and its relationship to toddlers' initial sociability with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17*, 326-335.
- Puttalaz, M. (1987). Maternal behavior and children's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58*, 324-340.
- Sroufe, L. A. (1983). Infant-caregiver attachment and patterns of adaptation in preschool: The roots of maladaptation and competence. In M. Permuter (Ed.),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 16* (pp. 14-83).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Sroufe, L. A., & Fleeson, J. (1986). The attachment and the construction of relationships. In W. Hartup & Z. Rubin (Eds.), *Relationships and development* (pp. 51-71). Hillsdale, NJ: Erlbaum.
- Sroufe, L. A., Schork, E., Motti, F., Lawroski, N., & LaFreniere, P. (1985). The role of affect in social competence. In C. Izard, J. Kagan, & R.

- Zajonc (Eds.), *Emotions, cognition, and behavior* (pp.289-319).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uess, G. J. (1987). Consequences of early attachment experiences on competence in preschoo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ät Regensburg, Germany.
- Urban, J., Carlson, E., Egeland, B., & Sroufe, A. (1991). Patterns of individual adaptation across childhoo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3, 445-460.
- Waters, E. (1987). *Attachment Behavior Q-set (version 3.0)*. Unpublished manual,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New York.
- Youngblade, L. M. & Belsky, J. (1992). Parent-child antecedents of 5-year-olds' close friendships: A longitudinal analysis. *Developmental*